

한국교원대학교 2023학년도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자체평가보고서

I. 선행학습 영향평가 대상 문항

○ 2023학년도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문항은 수시모집 면접 2개 문항이다. 본 문항들은 교육 관련 내용이며 특정 교과와는 관련이 없다.

<표1>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대상 문항

평가 대상	입학전형	계열	입학 모집요강에 제시한 자격 기준 과목명	문항 번호	하위 문항 번호	계열 및 교과										교과 외
						인문사회			수학	과학				영어	기타	
						국어	사회	도덕		물리	화학	생명 과학	지구 과학			
면접	수시모집 학생부 종합전형	모든 계열	해당 없음	1	1	-	-	-	-	-	-	-	-	-	○ 교육 관련 내용	
					2											
				2	1											
					2											
실기고사	정시 예술체육 실기전형	예술체육 계열	해당 없음			-	-	-	-	-	-	-	-	-	○	

※ 정시모집 예술체육실기전형의 실기고사는 예외적으로 적용 배제[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II. 선행학습 영향평가 진행 절차 및 방법

1. 대학별고사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이행 사항 점검 체크리스트

○ 우리 대학은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와 관련하여 다음의 이행 사항들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표2>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이행 사항 점검 체크리스트

구분	판단 기준		
	항목	세부 내용	이행 점검
대 학별고사 실시 관련 이행 사항 점검	1. 관련 자료의 홈페이지 게시	① 기간 내 선행학습 영향평가 자체평가보고서 공개 (문항과 답안 공개의 충실성)	○
	2.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항목 준수	② 문항 총괄표 작성의 충실성	○
		③ 문항 제출 양식(문항카드) 작성의 충실성	○

구분	판단 기준		
	항목	세부 내용	이행 점검
		④ 장별 내용 제시 여부	○
대학별고사 실시 관련 이행 사항 점검	3. 선행학습 영향평가 위원회 구성	⑤ 위원회의 외부위원 포함 여부	○
		⑥ 현직 고등학교 교원 포함 여부	○

2.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대한 대학의 자체 규정

- 「한국교원대학교 학칙」(규정 제785호) 제40조의 2(입학전형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 ①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실험고사 및 교직 적성·인성검사를 말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3. 18.>
 - ②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방법, 절차 등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5. 3. 18.>

<표3> 「한국교원대학교 대입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지침」(일부개정 2021. 3. 18.)

한국교원대학교 대입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지침

제정 2015. 3. 24.

일부개정 2021. 3. 18.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교원대학교 학칙」 제40조의2에 의거하여 대입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한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입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당연직 위원은 입학학생처장, 입학학생처 부처장, 입학인재관리과장으로 하며, 임명·위촉직 위원은 본교 전임교원, 현직 고등학교 교원, 고교 교육과정 전문가, 학부모 중에서 입학학생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임명·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임명·위촉직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신규 임명·위촉하는 위원에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입학학생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입학학생처 부처장이 되며, 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⑤ 위원회의 실무를 위해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의 대입전형 반영계획에 관한 사항

2. 기타 영향평가와 관련된 주요 사항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제5조(평가절차 및 방법) ① 영향평가는 매년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대학별 고사가 종료된 이후에 실시한다.

② 위원장은 영향평가에 대한 연구조사를 목적으로 별도의 연구팀을 구성할 수 있다.

③ 연구팀은 영향평가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며, 위원회에서는 이를 심의한 후 총장에게 보고한다.

제6조(평가결과 활용 및 공시) ① 총장은 영향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대입전형에 반영할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대입전형에의 반영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우리 대학 입학안내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기타) 영향평가 등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학학생처장이 정한다.

부칙(2015. 3. 24.)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3. 18.)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선행학습 영향평가위원회 조직 구성

-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추진하기 위해 ‘대입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와 ‘선행학습 영향평가 연구팀(이하, 연구팀)’을 구성하였다.
- 위원회는 고교 교육과정 전문가, 현직 고등학교 교원, 학부모 등 외부 위원과 입학학생처장, 입학학생처 부처장, 입학인재관리과장, 학내 교수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대학별고사가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서 출제 및 평가되었는지 여부’와 ‘대학별고사로 인해 선행학습이 유발되었는지 여부’,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의 대학 입학전형 반영계획’ 등에 대해 심의한다.
- 연구팀은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구성하였다. 이 연구팀의 책임자는 위원회 위원인 입학학생처 부처장이며, 관련 분야 전문가인 학내 교수 2명과 입학사정관 1명이 연구위원(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였다.

<표4> 선행학습 영향평가 관련 조직 구성

구분	구성	역할
대입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 ※ 위부 위원: 고교 교육과정 전문가(장학사 1명), 현직 고등학교 교원(1명), 학부모(1명) 등 3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별고사가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서 출제 및 평가되었는지 여부 심의 ◦ 대학별고사로 인해 선행학습이 유발되었는지 여부 심의 ◦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의 대학 입학전형 반영 계획 심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연구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책임자(입학학생처 부처장) 및 공동연구원(학내 교수 2명, 입학사정관) 등 4명으로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학년도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연구보고서 작성

4. 2023학년도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일정 및 절차

- 선행학습 영향평가 연구는 2022. 6. 1.(수) ~ 2023. 1. 13.(금)까지 8개월간 연구팀이 진행하였고,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위원회 심의는 2023. 3. 22.(수)에 진행하였으며, 최종 결과는 2023. 3. 31.(금) 16:00이전에 우리 대학 입학안내 홈페이지 및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의 대입정보포털 ‘어디가’(www.adiga.kr)에 게시하였다.

<표5> 선행학습 영향평가 절차 및 기간, 내용

절차	기간	내용
선행학습 영향평가 연구 실시	2022. 6. 1.(수) ~ 2023. 1. 13.(금)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연구보고서 작성
대입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 위원회 심의	2023. 3. 22.(수) 17:00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심의
최종 결과 보고 및 결과 공개	2023. 3. 31.(금) 16:00 이전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공개 ※ 입학안내 홈페이지 및 대교협 대입정보포털 (www.adiga.kr)

Ⅲ. 고교 교육과정 범위 및 수준 준수 노력

1. 본교 면접의 특징

- 교육부의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2013. 12. 2.)에 따라 2015학년도 대학 입학전형부터 본교 면접은 교과지식을 묻는 구술형 심층 면접을 폐지하는 대신, 교직 적·인성 문항과 개방형 질문을 활용해 지원자의 예비교사로서의 인성과 적성, 역량을 평가하는 교직 적·인성 중심의 면접을 운영하여 수험생들의 면접 준비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선행학습 유발을 억제해 왔다.
- 본교 면접 형태는 개별 면접으로, 수험생 1인에 대해 3인의 면접위원들이 정성적·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은 전공적합성, 교직 적성, 교직 인성, 문제해결능력이다.
- 교직 적·인성 면접 문항은 입학인재관리과에서 설치한 ‘면접 문제 출제 본부’(보안 관리, 접근 통제)에서 합숙 출제하였고, 개방형 질문은 별도 문제 출제를 하지 않고, 입학인재관리과에서 사전에 제공한 ‘개방형 질문 예시 자료’를 참고하여 면접위원이 질문하도록 하였다.

<표6> 개방형 질문 예시

1. 고등학교 수업 중 지원 전공과 관련하여 가장 흥미 있었던 주제는 무엇인가요?
2. 실생활에서 지원 전공과 관련된 지식을 확인하거나, 응용해 본 경험이 있다면 말씀해 보시오.
3. 지원 전공과 관련하여 최근에 읽은 책이 있다면, 간단하게 소개해 보시오.
4. 학교생활 중 지원 전공 또는 특정 분야에 몰두하여 최선을 다한 경험이나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보시오.
5. 지원자가 생각하는 좋은 교사란 무엇인지 자유롭게 말씀해 보시오.

○ 면접 실제 소요시간은 10분 내외이며 면접 절차는 다음과 같다.

<표7> 2023학년도 수시모집 면접 시간 및 절차

① 면접대기실 입실 ⇒ ② 발표자료 작성실 입실 ⇒ ③ 교직 적·인성 문항에 대한 발표자료 작성(약 10분) ⇒ ④ 면접실 입실 ⇒ ⑤ 작성 내용 발표(약 3분) ⇒ ⑥ 발표 내용 관련 질의/응답(약 3분) ⇒ ⑦ 개방형 질문 관련 질의/응답(약 4분)

※ 면접 시간 및 절차는 학과별·수험생별로 일부 다를 수 있음.

○ 2023학년도 수시모집 면접은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누어 대면 면접으로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교직 적·인성 면접 문항도 오전반, 오후반으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문제를 출제하였다. 다만, 교직 적·인성 면접 문제에 따라 수험생의 유·불리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면접 문제의 난도는 최대한 균등하게 조정하였다.

2. 출제 전

○ 고교 교육과정 분석

- 우리 대학 면접은 교과지식을 묻지 않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별도 고교 교육과정 분석은 실시하지 않는다.

○ 출제 및 검토 위원 인력풀 구성

- 학내 교수 중에서 입학사정관 경력, 고교 교육과정 개발 참여 경력 등을 고려하여 교직 적·인성 면접 문항 출제 및 검토 위원 인력풀을 구성하였다. 우리 대학은 유·초·중등 교원을 모두 양성하는 국내 유일의 종합교원양성대학이기 때문에 우리 대학 교수들은 초·중등 교원 경력자, 교육과정 개발 위원, 교과서 집필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 등의 다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 대학 내부에서 충분한 고교 교육과정 전문가를 확보하고 있고, 교과 지식을 묻는 형태의 면접 형태가 아니며, 면접 문제 유출로 인한 입시의 공정성 훼손 가능성을 고려하여 외부 전문가나 고등학교 교사들을 출제 및 검토 위원으로 참여시키지 않았다.

○ 출제·검토위원에 대한 사전 교육

- 출제 전에 사전 교육(1회)을 실시하는 데 1시간 정도가 소요[2022. 11. 29.(화) 09:00-09:40] 되며, 그 교육 내용은 면접 문제 출제 매뉴얼 교육, 면접 문제 출제 시 유의사항, 2022학년도 기출 문제 및 관련 피드백 전달, 최근 5년간 기출 문제 확인, 면접 문제의 최신 경향 등이다.

- 면접 출제 및 검토 위원들이 준수하여야 하는 “대학 입학 면접 출제 매뉴얼”은 다음과 같다.

<표8> 「대학 입학 면접 출제 매뉴얼」(제정 2022. 11. 25.)

대학 입학 면접 출제 매뉴얼

제정 2022. 11. 25.

I. 출제 전 사전 숙지 사항



- 교육 관련 내용과 일반적인 사회현상 관련 이슈를 중심으로 수험생의 의견을 묻는 구술형 면접문제(개방형 질문 형태)를 출제 하되, 고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이면 답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한다.
 -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5조(입학전형자료)
 -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0조(대학 등의 입학전형 등)
 - ▷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대학 수준 이상의) 사실, 개념, 내용 등 출제 금지
- 수험생에게 부담이 되는 교과 중심의 문제 풀이식 구술형 면접문제는 출제하지 아니한다.
 - ▷ 「대입전형 기본사항」(한국대학교육협의회) 준용
- 국·영·수 중심 본고사 형태의 면접문제는 출제하지 아니한다.
 -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제135차 이사회 의결사항(2008. 2. 4.)

II. 출제 작업 시 준수 사항

1. 문항 초안 제작

- 교사로서 교과지도 및 생활지도와 같은 교직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성, 태도 및 교직수행능력 등의 영역으로 교직 적성, 봉사와 나눔, 리더십 등을 전반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하되, 가급적 특수(교과)지식보다는 교직생활에 필요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상황과 소재를 사용한다.
- 기출문제를 반드시 검토하여 최근 5년 이내에 기출된 주제 및 개념, 질문은 다시 출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출제한다.
- 면접문제는 제출양식에 의거하여 작성하되, 지문, 질문, 출제의도, 평가 주안점 등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 면접 문제 출제 시 다음 용어와 종결 표현은 통일하여 일관되게 사용한다.
 - ▷ 지원 학생, 예비교사, 면접 학생, 면접 대상자, 피면접자, 학생 등 ☞ 면접 대상 학생
 - ▷ 질문: ~ ~ 말하시오, ~ ~ 설명하시오, ~ ~ 제시해 보자 등 ☞ 설명해 보자.
- 특정 용어의 올바른 표기나 사전적 의미 등은 표준국어대사전(<https://stdict.korean.go.kr>)이나 고려대한국어대사전(<https://dic.daum.net>)을 검색하여 확인한다.

2. 유불리 발생 방지

- 특정 학교급별(유아, 초등, 중등) 성격이 부각되지 않게 출제한다.
 - ▷ 예) A중학교  A학교, 아동  학생
 - ▷ 특정학교급에 국한된 용어 사용 지양(자유학기제, 돌봄 등)
- 특정 지역, 특정 고교, 특정 계열 학생들에게 친숙하거나 유리할 수 있는 내용을 문제로 출제하지 않는다.
 - ▷ 예) 경기도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경기꿈의대학'
 - ▷ 예) 자사고, 외고, 국제고 폐지 정책
 - ▷ 예) 문과 계열 학생들에게 친숙한 사회 교과 사실, 개념 등 사용
-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에 유불리가 발생할 문제는 출제하지 않는다.

3. 난이도 적정화

- 문제의 난이도는 오전 오후반이 균등할 수 있도록 하며, 문제의 수준은 평이하지만, 가치관이나 관점에 따라 다른 의견과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내용으로 출제한다.
- 문제의 난이도를 검토할 때에는 면접 문제에서 다루는 내용에 대한 수험자의 친숙도, 면접 문제 유형의 복잡도, 지문의 길이나 어려운 용어 사용 여부, 문제에서 요구하는 사고력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III. 문항 검토 시 주의 사항

- 본 면접문제와 출제의도·평가 주안점 등은 면접 종료 후 우리 대학 입학안내 홈페이지에 공고되니, 출제위원은 면접문제의 타당성과 적합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0조(대학 등의 입학전형 등)
- 문항 점검표 등을 활용하여 문항 검토 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문항 점검표 예시〉

점검 사항	예	아니요
① 기출 문제나 학원 등의 예상 문제와 차별화되는 참신한 문항인가?		
② 수험생의 사고력 등 여러 능력을 변별할 수 있는 문항으로서 적절한가?		
③ 필요한 경우, 답을 찾기 위한 조건이나 용어에 대한 해설이 충분히 제시돼 있는가?		
④ 불필요한 장황한 표현이 없으며 전체 지문의 길이 등은 적당한가?		
⑤ 지문, 질문, 출제의도, 평가 주안점 등의 완성도가 높은가?		
⑥ 오전반과 오후반 문항이 균형감이 있으며 난이도가 적정한가?		
⑦ 장애 유무나 특정 학교급, 학과, 지역, 고교, 계열, 성별 등에 따른 유불리가 존재하는가?		
⑧ 학교나 교직에 부정적인 내용을 포함하는가?		
⑨ 차별적 표현을 포함하거나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내용이 있는가?		

IV. 면접 시행 및 완료 후 관리

- 학과별로 면접 시행 시 면접문제와 관련하여 면접위원의 질의 사항이 있을 시 출제위원(장)이 답변한다. 질의 내용은 기록으로 남겨 추후 출제 시 시사점으로 활용한다.
 - 면접 완료 후 문항 공개 전, 문항에 수정이 필요한 사항(예: 단순 오타자 발생 등)이 발견 시 지체 없이 입학학생처장에게 보고한다.
 - 사후 관리 차원에서 수험생들의 의견 확인(예: 인터넷 게시물 확인), 각 학과 면접위원들의 의견 청취, 입학사정관 연수 등에서 면접문제에 대한 의견 발생 시 청취 등을 통해 사후 면접 문제 출제 작업의 개선에 기여한다.
-

3. 출제 과정

- 수시모집 출제위원은 학내 교수 4명이며 검토위원을 겸직한다. 그리고 출제위원장은 교수입학사정관(입학학생처 부처장)이며, 검토위원장을 겸직한다. 출제 관련 사전 교육을 마친 후 출제위원은 개별적으로 면접 문제를 2개씩 출제한다.
- 출제위원들이 모두 출제를 완료하면 그 문제에 대해 출제위원 전원이 공동 검토한다. 그 후 출제에 참여한 입학사정관이 출제된 문항에 대해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최종 검토한다.
- 이렇게 최종 검토하여 완성된 문항 중 완성도, 면접반(오전반, 오후반)별 난도 등을 고려하여 출제위원장이 2개 문항을 본 문항으로 선정한다. 이어서 출제위원장은 본 문항 유출 등 비상시를 대비하여 2개 문항을 예비 문항으로 선정한다.
- 선정된 본 문항과 예비 문항은 진행위원(입학사정관 1명, 타 부서 직원 1명)에게 인계되며, 진행위원은 면접 문항 인쇄 및 밀봉 작업을 수행한다.
- 밀봉 작업까지 완료된 문항은 입학인재관리과장에게 인계되어 면접 당일 면접 문제 개봉 시까지 보안이 유지되는 장소의 이중 잠금 장치가 있는 금고에 보관되게 된다.

4. 출제 후

- 면접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문제 출제 후 출제위원은 합숙장소에 격리되어 외부와의 연락이 통제되며, 면접 당일 오후반 첫 번째 면접 학생이 면접 평가실로 입실하게 되면 귀가하게 된다.
- 입학인재관리과에서는 면접 종료 후 면접 문제에 대한 면접 평가위원의 피드백과 수험생의 반응 등을 면담 또는 온라인 조사하여 면접 출제위원에게 전달하고, 그 내용들을 별도 정리하여 다음 모집 시기의 면접 출제위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자료로 활용한다.

IV. 문항 분석 결과 요약

- 본교의 면접 문항에서 제시하는 상황은 정상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라면 일반적으로 경험했을 내용은 담고 있으며, 평소에 교육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교육적 관점을 정리해 온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답할 수 있는 문제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문항을 제시하는 형식적 구조나 언어적 표현도 고등학생들에게 적절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 이렇게 볼 때, 본교의 면접 문항은 사교육이나 선행 학습에 의해 평가가 결정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사교육이나 선행 학습을 유발할 만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답변으로 요구하는 내용 자체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특정한 지식이나 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특히 그렇다. 오히려 개방형 질문을 제시함으로써 수험생들이 다양성과 창의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교육과 선행 학습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교 면접 문항은 사교육이나 선행 학습 유발 요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표9> 면접 문항 분석 결과 요약

평가 대상	입학전형	계열	문항 번호	하위 문항 번호	교과별 교육과정 과목명	교과별 교육과정 준수 여부	문항 불임 번호
면접	수시모집 학생부 종합전형	모든 계열	1	1	보편적 교육 관련 내용 (특정 교과와 관련 없음)	정상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구성	해당 없음
				2			
			2	1			
				2			

V. 2023학년도 수시모집 면접 응시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요약

- 우리 대학 수시모집 면접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2023학년도 대학별고사(면접)의 선행학습 유발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면접 응시 학생은 937명이고, 응답 학생은 476명이므로 설문 응답률은 50.8%이다. 응답 학생 중 남학생은 141명(29.6%), 여학생은 335명(70.4%)이다.
- 설문조사 결과, 선행학습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전체 응답 학생(476명) 중 52명(10.9%)이고, 선행학습을 하는 이유는 ‘대학 진학(면접, 논술 등)에 유리할 것 같아서’가 27명(54.0%), ‘학교 교육이 불

충분하다고 생각해서'가 8명(16.0%), '남들이 다하니까 불안한 마음에'가 3명(6.0%), '부모님 또는 주변의 권유에 의해서'가 1명(2.0%), '기타'가 11명(22.0%)로 나타났다.

<표10> 선행 학습 경험 유무 (대상: 응답 학생 476명)

(단위: 명, %)

선행 학습 경험	빈도(명)	비율(%)
있음	52	10.9
없음	424	89.1
전체	476	100

<표11> 선행학습의 요인 (대상: 선행 학습 경험자 중 해당 설문 응답자 50명)

(단위: 명, %)

대학 진학(면접, 논술 등)에 유리할 것 같아서	학교 교육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해서	남들이 다하니까 불안한 마음에	부모님 또는 주변의 권유에 의해서	기타	합계
27 (54.0)	8 (16.0)	3 (6.0)	1 (2.0)	11 (22.0)	50 (100)

- 우리 대학의 대학별고사(면접)의 선행학습 유발 정도에 대한 인식 수준을 '예', '아니요'로 조사한 결과, 선행 학습 유발에 대한 비동의 빈도는 409명(88.1%)이고, 동의 빈도는 55명(11.9%)으로 나타났다.

<표12> 본교 대학별고사(면접)의 선행학습 유발 정도 (대상: 응답 학생 464명)

(단위: 명, %)

설문 내용	예	아니요	기타	전체
본교 면접은 고교 수준을 넘어선 선행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55 (11.9)	409 (88.1)	0 (0.0)	464 (100)

VI. 대학 입학전형 반영계획 및 개선 노력

1. 대학 입학전형 반영계획

- 본교가 지향하는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서 지금과 같이 교직에 대한 이해와 적성 및 인성, 미래의 교사로서 자질 등을 갖추고 있는지, 자기이해와 자기성찰의 태도를 갖춘 교원으로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지를 확인하는 교직 적·인성 중심 면접을 앞으로도 계속 운영하여 선행학습이 유발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2. 개선노력

- 매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대학별고사의 선행학습 유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선행학습 유발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대학별고사의 선행학습 유발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유발 요인이 발견될 경우 개선하도록 하겠다.
- 현재도 진행 중이지만, 면접 과정이나 면접 문항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수험생과 현장 교사, 출제 참여자 및 면접관, 학교 행정 관련자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사전에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수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노력하겠다.

Ⅶ. 부록

- 한국교원대학교 수시모집 면접문항 정보

【부록】 한국교원대학교 수시모집 면접문항 정보

1 2023학년도 대학 수시모집 교직 적·인성 면접 문항(오전반)

1. 일반정보		
유형	면접	
전형명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모든 계열 / 문항 1	
출제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교과 외
	핵심개념 및 용어	교권, 교육활동 침해 행위
예상 소요 시간	6분 정도	

2. 문항 및 자료

〈사례 1〉 ○○시 소재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가 학생이 던진 교과서에 얼굴을 맞아 다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보도에 따르면 5학년 학생갑이 수업을 하던 A교사에게 교과서를 두 차례 집어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학생 갑은 수업 도중 “시험을 봐야 하니 자지 말고 일어나라.”라고 말한 A교사에게 교과서를 던진 후 교사의 지적을 듣자 다시 얼굴에 교과서를 던졌다. A교사는 다행히 큰 부상은 입지 않았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 교원 보호조치에 따라 특별휴가 5일을 받았다가 복귀했다. 한편, 학교는 학생 갑을 징계하였다.

〈사례 2〉 △△시 소재 학교에서 학생 을이 수업 중 스마트폰을 들고 교단에 드러누워 동영상 찍는 듯한 영상이 누리 소통망 서비스(SNS)에 게시되어 논란이 되었다. 12초 분량의 동영상에는 학생 을이 드러누운 채 칠판에 글씨를 쓰는 B교사를 뒤에서 촬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모습이 담겼다. 한편, 영상이 올라온 계정은 수업 중 또 다른 학생이 상의를 벗은 채 교사에게 말을 거는 모습이 담긴 영상도 게시되었다. 이에 학교는 관련 학생을 징계하였다.

- 1) 면접 대상 학생이 A 교사, B 교사라면 각각의 사례에 어떻게 대처했겠는가? 이와 같이 최근 논란이 되는 다양한 교권 침해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설명해 보자.
- 2)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인권은 대립된다는 주장도 있으나, 일부 학생의 과도한 행위는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인권을 조화시킬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설명해 보자.

3. 출제 의도

이 문항은 교사의 교권과 학생 인권의 대립을 인식하고 그 조화 방안을 탐색하는 것이다. 2022년 1월 24일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발표한 ‘2021년 교육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36.2%가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이유로’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를 선택했다. 26.2%는 ‘학교교육이나 교원에 대한 학생·보호자(부모 등)의 불신’이라고 응답했고, 17.5%는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학생·보호자(부모 등)의 인식 부족’이라고 응답했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과제’로는 ‘침해 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 강화’(36.9%)를 선택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예방교육, 캠페인 등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전 사회적 인식 제고(23.8%)가 그 뒤를 이었다.

학생의 인권을 강조하다 보면 교사의 교권이 제약될 수 있다.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교사의 교권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인정되는 권한이다. 그리고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의 행위를 적절히 규제하지 못하면 교육 활동 침해 학생 외 일반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 활동 침해 학생에 대해서는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

4. 평가 주안점

- 1) 면접 대상 학생이 A교사, B교사라면 현장에서 어떻게 대처했겠느냐는 질문은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다. 현장에서 교육 활동을 침해하는 학생의 행위를 적절히 규제하여 일반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 자신도 보호할 수 있는 대처 능력을 평가한다. 학생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정당한 지도도 주저하는 학교 분위기,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교사의 정당한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 등 교권 침해의 구조적 원인을 적절히 설명하는지 평가한다.
- 2)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인권이 대립된다는 주장이 있다. 교사의 교권은 교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가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권한'의 성격이 강하다. 교사의 교육 활동을 침해하는 학생의 행위를 적절히 규제하지 못하면 일반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교육 활동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해 적절하게 규제할 때 일반 학생의 학습권이 보호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학생이 양자의 조화 방안을 적절히 제시하는지 평가한다. 답변에서 제시한 내용의 다양성과 창의성도 중요하지만 관련 내용의 논리적 정합성과 균형 잡힌 가치관도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활용한다.

2] 2023학년도 대학 수시모집 교직 적·인성 면접 문항(오후반)

1. 일반정보

유형	면접	
전형명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모든 계열 / 문항 2	
출제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교과 외
	핵심개념 및 용어	교사의 사기
예상 소요 시간	6분 정도	

2. 문항 및 자료

교단에 들어선 지 얼마 되지 않아 교직에 들어선 것을 후회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교사들에게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나 책임감을 요구하고 많은 양의 교과 지식을 습득하기를 바란다. 또한 교수 방법도 잘 익히기를 기대하고 생활지도를 잘하여 학생들이 인격적으로 성장하도록 돕기를 요구한다. 이에 더해 학생들의 진학 지도와 학교 행정 업무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바란다. 이처럼 교사에게 많은 책임과 의무를 요구하는 반면에, 그들의 사기를 높이는 방안을 찾는 것에는 소극적인 편이다.

이에 교육계 안팎에서 교사들의 사기를 높이는 방안을 찾고 있다. 교육계 안에서는 교사들의 직급을 세분화해서 그에 맞는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지는 의견이 있다. 현재 교직은 평교사, 부장교사, 교감, 교장으로 나뉘는데, 이를 군대의 계급처럼 다양한 직급으로 나뉘어 승진의 기회를 많이 주는 것이다. 이는 교사들이 의욕적으로 교직에 임하도록 적절한 보상과 대우를 하지는 의도이다.

또한 교육계 밖에서는 교사들에게 많은 경제적 혜택을 주자는 의견이 있다. 예를 들어 교사들이 비행기를 탈 때 할인 혜택을 주거나 자동차나 가전제품 등 고가의 물건을 구입할 때도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또한 주택 구입 시 세금 감면 혜택을 주어 경제적인 이익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 1) 위에서 제시한, 교육계 안과 밖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기 진작 방안 각각에 대해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의사를 밝히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자.
- 2) 교사들의 사기가 떨어지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해 보고, 위에서 제시한 방안 이외에 구체적인 사기 진작 방안에 대해 설명해 보자.

3. 출제 의도

이 문항은 현장 교사들이 겪는 사기 저하 문제에 대해 면접 대상 학생들이 잘 인식하고 있는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사기 저하 문제의 원인에 알맞은 해결책을 창의적으로 생각해 낼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한다. 학생들의 인권은 향상됐지만 상대적으로 교권은 추락하고 있고 교원 임용 경쟁률은 치열해지는 상황에서도 본교에 진학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이 교직에 대해 얼마나 심도 있게 생각해 봤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4. 평가 주안점

- 1) 교육계 안과 밖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기 진작 방안, 각각에 대해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이유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는지를 확인해 봄으로써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예를 들어 교직의 직급을 세분화하여 승진의 기회를 많이 주게 되면 교사들이 좀 더 의욕적으로 자기 계발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발전을 도모하고 교직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지한다든지, 승진에 지나친 집착이 오히려 동료 간의 갈등이나 위화감을 조성하여 바람직한 교직 문화를 저해할 수 있어 반대한다는 것과 같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지를 평가한다.
- 2) 사기 저하 원인과 사기 진작 방안에 대해 면접 대상 학생이 심도 있게 고민했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시행 방안까지 잘 제시했는지를 평가한다. 예를 들어 교권 침해를 겪은 교사에게는 무조건 휴양을 하게 하고 상담 치료를 제공한 후 현장 복귀가 가능한 상태라는 전문가의 판단이 있는 후에만 복귀를 추진한다 등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는지 평가한다. 만약 제시한 방안이 덜 구체적이거나 실현 가능성이 적을 경우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게 유도하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새로운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학생들의 생각을 잘 이끌어 내도록 한다.